

EU, 농업구조 변화

임 송 수*

유럽연합(EU)은 2004년에 10개국, 2007년에 2개국이 새로 가입하면서 27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회원국 확대는 세계 최대 농업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EU의 농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EU가 발표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농가, 고용, 생산 측면의 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1. 농가구조의 변화

EU는 1951년에 6개국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 27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였다<표 1>. 1973년부터 시작하여 모두 5번의 회원국 확대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04년과 2007년에 12개국 가입(NMS12)이 가장 큰 규모이다. NMS12 가운데 키프로스, 몰타는 지중해 지역 국가이고 나머지 10개국은 동구권 유럽 지역 국가이다. NMS12가 EU 체제에 완전히 통합하는 기간으로 주어진 것은 최대 7년이다.

2005년에 농경지 면적은 EU15(15개국)가 1억 8,326만 ha이고 EU27(27개국)이 2억 3,795만 ha로 신규 회원국으로 말미암아 총면적은 30% 가량 늘어났다<그림 1>. EU15 중 프랑스의 면적이 2,985만 ha로 가장 크고 NMS12 중에서는 폴란드가 1,591만 ha로 최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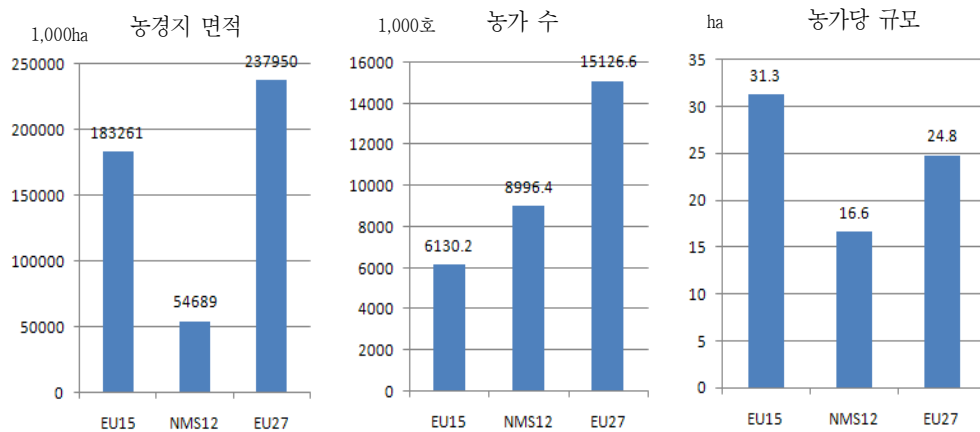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soo@krei.re.kr 02-3299-4382

표 1 EU 회원국 확대 추이

EU 확대	가입 신청	가입	전환 기간	회원국 수	회원국
시작	1951년	1951년	-	6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차	1961	1973	5년	9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2차	1962	1981	5년	10	그리스
3차	1977	1986	7~10년	12	스페인, 포르투갈
4차	1989 1991	1995	없음	15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5차	1990 1994 1995 1995 1996	2004 2004 2004 2007 2004	최대 7년	27	키프로스,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

그림 1 농경지 면적과 농가 수, 2005년



주: 농가 수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2000년 기준이고, 프랑스와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2003년 기준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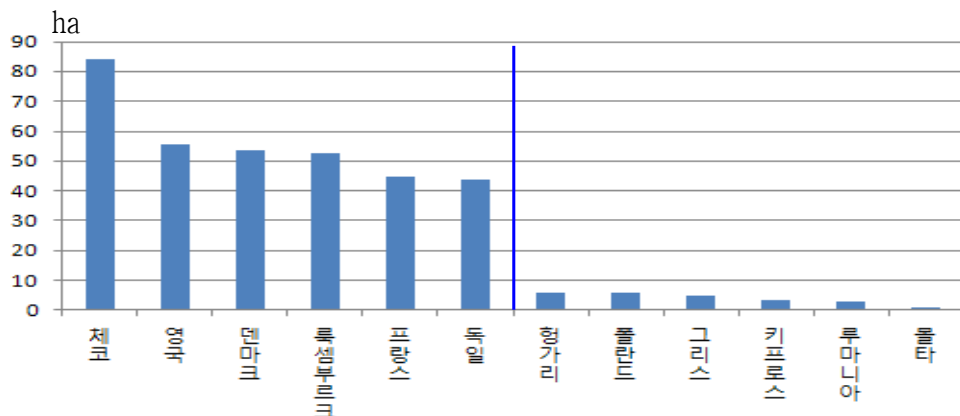
EU15와 EU27의 농가 수는 각각 613만 호와 1,513만 호이다. NMS12 농가 수가 EU15보다 47% 많다. 특히 루마니아(449만 호)와 폴란드(248만 호)의 합계만으로도

EU15 농가 수를 능가한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EU보다 1억 ha 이상 넓고 그 농가 수는 EU의 1/7에 불과하다.

농가당 농경지 면적은 EU15 평균이 31ha이고 NMS12가 17ha이다. EU27 평균은 25ha인데 이는 미국의 180ha보다 작은 규모이다. 농가 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은 체코로 84ha이고 경영 규모가 가장 작은 회원국은 몰타로 0.9ha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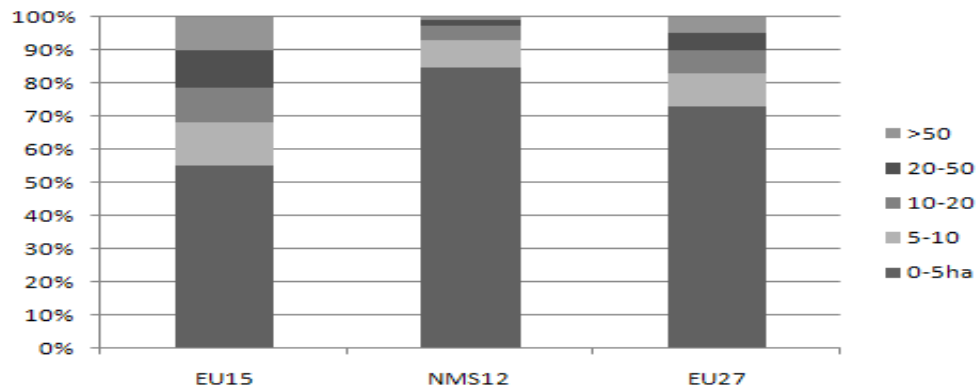
규모별 농가 수의 분포를 보면 5ha 미만이 EU15에서 평균 55%, NMS12에서 85%, EU27에서 73%를 차지한다<그림 3>. NMS12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농이 분포한다는 뜻이다. 특히 5ha 미만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몰타 98%, 불가리아 97%, 루마니아 94%,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각각 90% 순으로 높다. EU15 중 소농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 75%, 이탈리아 74%, 스페인 56% 순이다. 반대로 50ha 이상 대농의 비중은 EU15가 평균 10%, NMS12가 1%, EU27이 5%를 기록하였다. 대농 비중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EU15로 룩셈부르크 46%, 덴마크와 프랑스가 각각 33%, 영국 26%, 스웨덴 25% 순이다.

그림 2 상하위 각각 6개국의 평균 농가 규모, 2005년



주 : 그리스는 2000년, 프랑스와 루마니아는 2003년 농가 수를 기준하여 산출함.
자료 : EU 집행위원회

그림 3 농가 규모(ha)별 농가 수 비중,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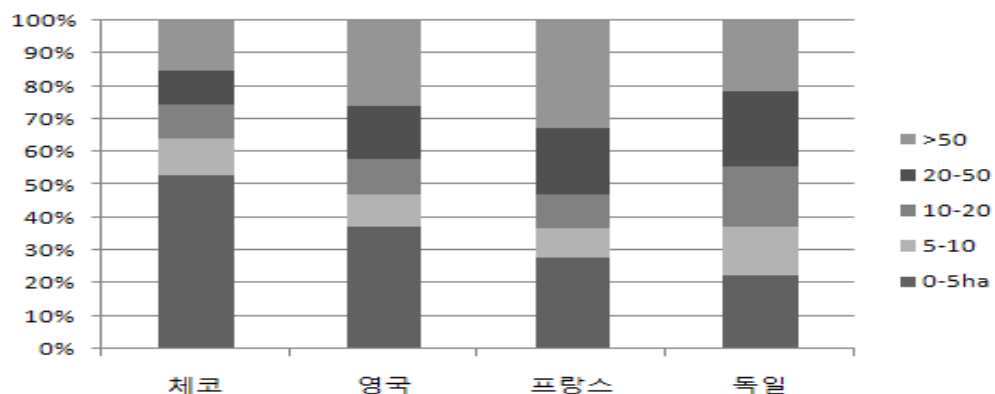


주 : 농가 수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2000년 기준이고, 프랑스와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2003년 기준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

전체 회원국 중 평균 농가 규모가 가장 큰 체코와 주요 EU15 회원국의 규모별 농가 수 분포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체코 농가의 절반 이상이 5ha 이하의 소농이고 50ha 이상의 대농 비중은 15%이다. 영국은 5ha 이하의 소농이, 프랑스는 50ha 이상의 대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은 규모별로 고른 농가 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4 주요국의 농가규모 분포,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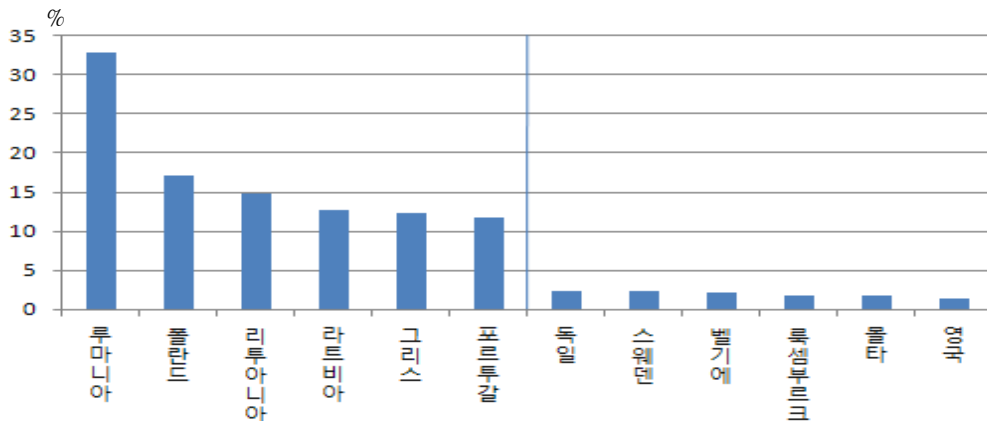
주 : 프랑스의 농가 수는 2003년 기준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

2. 농업고용 구조

2005년 기준으로 EU27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87만 명으로 EU15의 618만 명과 NMS12의 669만 명으로 구성된다.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NMS12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전체 고용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15가 평균 4.6%, NMS12가 10.1%, EU27이 7.1%이다. 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 33%에 이르고 폴란드 17%, 리투아니아 15%, 라트비아 13% 순이다<그림 5>. EU15 중에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비중이 각각 12%로 가장 높다. 이는 한국의 8%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5 상하위 각각 6개국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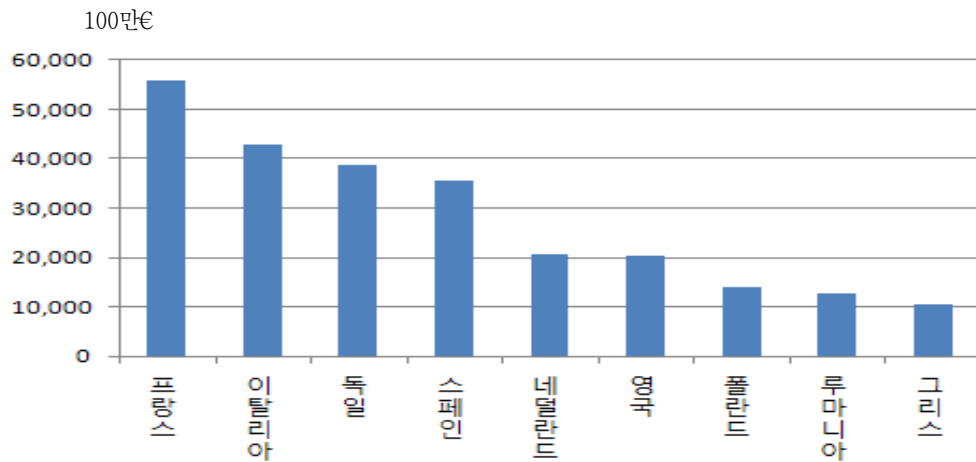
자료 : EU 집행위원회

3. 농업생산 구조와 식량 자급률

2005년 생산자 가격 기준으로 농업생산액은 EU27이 3,077억€이며 이 가운데 NMS12는 14% 가량을 차지한다.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는 558억€를 생산하고 그다

음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순이다<그림 6>. NSM12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생산액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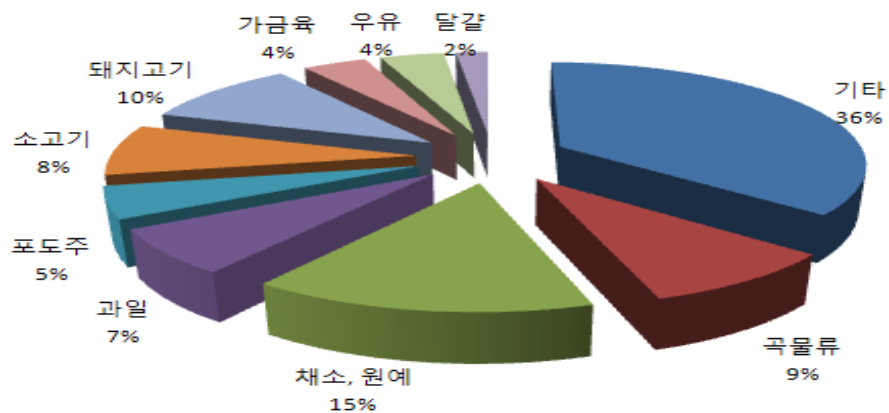
그림 6 회원국별 농업생산액 규모, 2005년



자료 : EU 통계국

품목별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채소와 원예가 15%로 가장 높고 돼지고기, 곡물류, 소고기, 과일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7>.

그림 7 EU25의 품목별 생산액 비중, 2005년



자료 : EU 통계국

주요 품목별의 생산 점유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곡물류에선 프랑스와 독일 및 이탈리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선과일과 채소 분야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가 주요 생산국이다. 축산과 낙농 분야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강세를 보인다.

표 2 주요 품목별·회원국별 생산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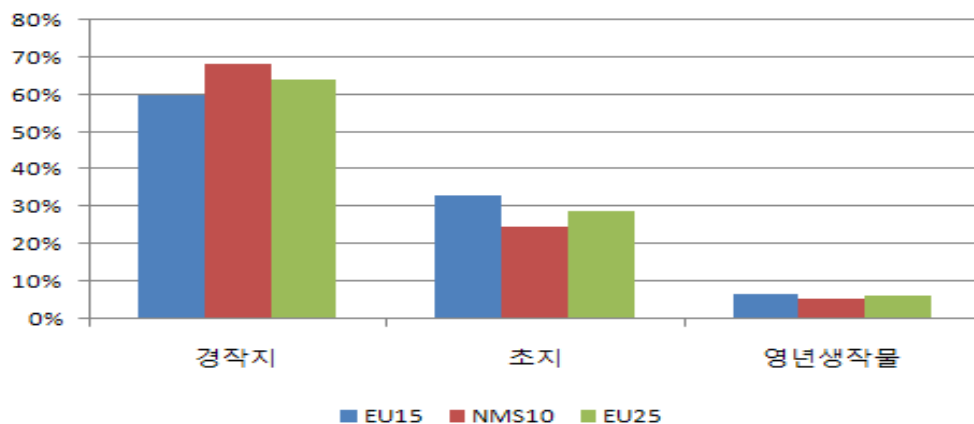
품 목	1위	2위	3위	4위	5위
밀	프랑스 27	독일 19	이탈리아 10	스페인 7	폴란드 5
호밀	독일 43	폴란드 33	스웨덴 8	영국 5	스페인 4
귀리	폴란드 31	스페인 11	독일 11	영국 10	핀란드 9
보리	독일 22	스페인 18	프랑스 18	덴마크 7	폴란드 4
옥수수	프랑스 27	이탈리아 26	스페인 11	헝가리 11	독일 8
쌀	이탈리아 54	스페인 29	영국 7	그리스 6	프랑스 5
사탕무	독일 22	프랑스 19	폴란드 9	이탈리아 8	스페인 7
담배	그리스 42	이탈리아 29	스페인 10	프랑스 7	폴란드 5
올리브기름	스페인 44	이탈리아 35	그리스 20	영국 10	포르투갈 1
유지작물	프랑스 29	헝가리 7	폴란드 6	스페인 6	이탈리아 5
신선과일	스페인 28	이탈리아 25	프랑스 14	그리스 8	영국 6
신선채소	이탈리아 27	스페인 24	프랑스 11	네덜란드 7	그리스 6
포도주	프랑스 48	이탈리아 29	스페인 8	독일 7	영국 6
종자	네덜란드 48	프랑스 15	덴마크 14	벨기에 4	독일 3
섬유질	그리스 79	프랑스 14	영국 4	포르투갈 3	벨기에 3
흡	독일 73	체코 11	영국 9	폴란드 3	프랑스 3
우유	독일 19	프랑스 18	영국 13	네덜란드 8	스페인 6
소	프랑스 27	독일 12	이탈리아 12	스페인 8	네덜란드 5
돼지	영국 26	독일 18	스페인 15	프랑스 10	덴마크 8
양과 염소	스페인 27	그리스 14	프랑스 13	영국 10	이탈리아 8
달걀	스페인 18	이탈리아 16	영국 14	프랑스 12	독일 10
가금육	프랑스 22	이탈리아 14	스페인 11	독일 9	영국 8
감자	프랑스 14	독일 14	네덜란드 10	스페인 10	폴란드 9
농업서비스	프랑스 24	네덜란드 19	독일 12	이탈리아 11	영국 4
기타	프랑스 19	독일 19	스페인 13	네덜란드 13	이탈리아 12
합 계	프랑스 20	이탈리아 14	독일 14	스페인 13	영국 7

주 : 숫자는 EU25=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2004년 생산 점유율(%)임.
 자료 : EU 집행위원회; EU 통계국

NMS10(NMS12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제외) 중에 상위 5위에 속한 회원국은 폴란드(호밀, 귀리, 보리, 유지작물, 홉)와 체코(홉)뿐이다. 전체 생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프랑스이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NMS10 중에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각각 7위를 12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17위 이하에 머물렀다.¹⁾

농경지 구성비율은 경작지와 초지 및 영년생 작물면적이 6:3:1 정도이다<그림 8>. NMS10의 경작지 비율은 EU15 수준보다 높고 초지비율은 낮다. 영년생 작물의 면적 비율은 비슷하다.

그림 8 농경지의 구성 비율, 2005년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05년에 EU25의 젓소와 고기소 사육두수는 각각 2,427만 두와 8,829만 두이고, 돼지는 1억 5,167만 두, 산란계는 3억 6,626만 수이다<표 3>. 고기소의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34두인데 이는 EU15 평균인 58두보다 낮다. 키프로스가 226두로 규모가 가장 크고, 리투아니아가 4두로 가장 작다. 돼지의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70두인데, 키프로스 2,371두, 아일랜드 1,474두, 덴마크 1,166두 순이다.

1) 17위 이하에 속한 유일한 EU15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24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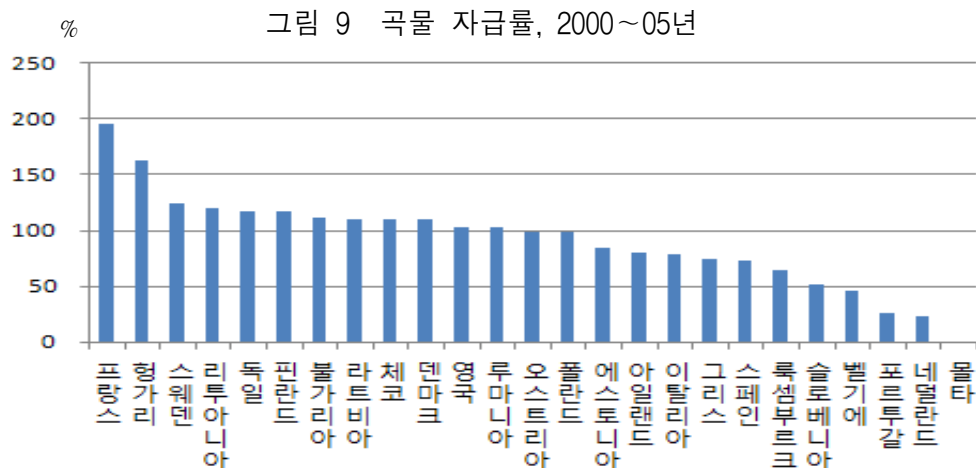
표 3 EU25의 작물 생산과 가축 두수, 2005년

산출액(억€)		가축 사육 두수(1,000두/수)			
작물	축산	젖소	고기소	돼지	산란계
1,574	1,295	24,267	88,292	151,673	366,255

주 : 생산액은 '기본가격' 기준으로 조세는 차감하고 보조는 포함한 것임.
 자료 : EU 통계국

EU25의 식량 자급률은 높은 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은 117%에 이른다.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196%로 가장 높고 헝가리,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순이다<그림 9>. EU15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가 자급률 23%로 가장 낮고 NMS12 중에서는 곡물 생산이 거의 없는 몰타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시기별·회원국별 곡물 자급률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EU15 자급률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최고 수준에 올랐다가 내림세 또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NMS12는 오름세를 보인다. 독일은 1988년부터 100% 이상의 자급률을 달성하였고 1980년대에 자급수준에 이른 그리스는 1995년부터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주 : (1) 키프로스와 슬로바키아의 자료는 없어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2) 몰타는 곡물을 거의 생산하지 않아 자급률이 0으로 나타남.
 자료 : EU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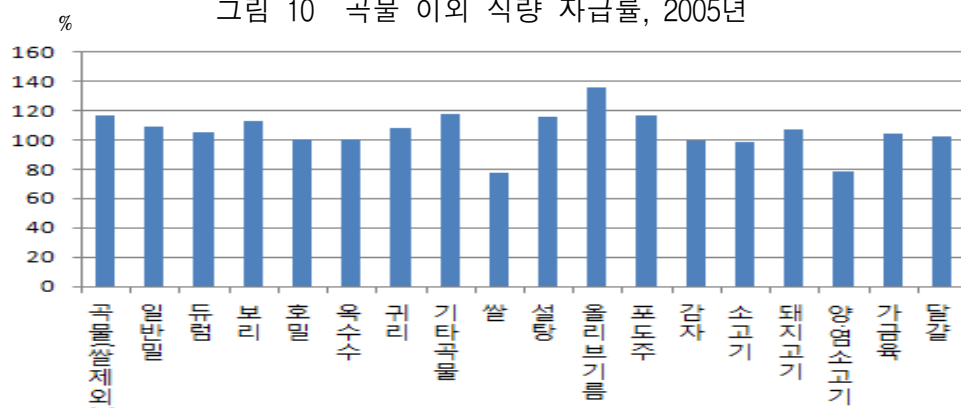
표 4 시기별·회원국별 곡물 자급률 비교

시기	50% 이하	50~100%	100% 이상
1970년대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프랑스
1980년대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1990년대	벨기에,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EU15
2000년대	벨기에,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EU15, EU25

자료 : EU 통계국

자급률이 100% 이하인 품목은 쌀, 감자, 소고기, 양과 염소고기 정도이다<그림 10>. 올리브기름의 자급률이 136%로 가장 높고 포도주와 기타곡물이 각각 117%를 차지한다.

그림 10 곡물 이외 식량 자급률, 2005년



자료 : EU 통계국

참고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